

2023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4.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3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23. 4. 20.(목), 14:30~15:55
- ◆ 장 소: HJBC 세미나룸A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일반안건 7건 10작품 (조각 9, 회화 1)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안건별 사전검토 의견서 보고 후 위원님별로 평가표에 따라 가/부/조건부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작품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종합,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승인 결정을 하고,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 후 위원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재결정 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합니다. 사전검토 시에 8건 11작품이었으나, 1개의 작품에 대해 심의취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 작품을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안건>

1. 작은 숲

<긍정적 의견>

- 작품의 규모와 형태가 설치 공간에 적합해 보임
- 작품가액 대비, 작품과 환경과의 구조적 관계가 돋보임
- 숲에서 자연의 미시적 생태계를 찾고 도심 속에 자연을 압축하여 삼입하려는 콘셉트는 도시인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음
-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며, 작품 조형성의 심도가 깊음
- 주변 건축물로 인한 공간의 협소함을 고려한 조형물로 형태의 표현력 면에서 긍정적임
- 과감한 컬러 적용

- 협소한 상업공간을 잘 해석하여 상징성을 보여줌

<부정적 의견>

- 경직된 형태로 미적 교감이 어려우며, 조형적으로 신선하지 않음
- 작가 작품과의 일관성이 없음
- 공간과 조화롭지 못한 구성으로 변화 없이 반복되는 불안한 형태의 작품
- 탁 트인 공간인데 반해 작품의 시각성은 다소 2차원적임
- 활꼴의 두께가 일정하고 단순하며 재료가 모두 동일하고, 물성이 경직되어 선과 활꼴에서 기대할만한 인장력이 잘 느껴지지 않음
- 작품의 제작 단가가 낮아서 볼륨 있는 조형물을 제작하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형물이라고 하기엔 공간에 비해 너무 약소해 보임
- 주목성이 더 도출될 수 있는 조형물이 제작 필요
- 설치 공간과의 연계성 미흡함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관성이 미흡해 보이며, 기념비가 연상되는 형식이 건축물과 조화로워 보이지 않음
- 열린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 다소 평면적인 조형성의 한계를 가짐
- 생태환경의 유기성을 표현한 작품과 경직된 직선 구조의 좌대가 다소 조화롭지 못함
- 철 위에 우레탄 도장으로 제작되는 재료의 취약성이 우려됨
- 심의도서에 명시된 보존계획(스크래치 발생 등)이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됨
- 작가가 가진 자연에 주제 의식과 달리 조형성을 띤 추상물로만 보여지기 쉬움
- 화단 내 배치된 작품은 좌측 펜스 부분 및 후측 나무 등과 너무 가깝고 주변이 산만함, 대상지 분석이 부족하고 대단히 장소 일반적임
- 좋은 내용의 피상적이고 무난한 표현으로 예술적 기대효과가 미미함
- 작품 재질이 철로 되어있는데, 부식의 위험이 있음(스테인리스스틸이나 알루미늄이어야 내구성과 보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듯)
- 공공작품의 재료로서 철의 사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부식 문제)
- 좌대 부분의 조형적 변경을 고려할 것
- 설치 건축물(위치)과의 조화 의문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전체적인 작품의 볼륨감이 낮고, 익숙한 패턴의 조형성, 아쉬운 독창성으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이 미흡
- 작품과 조경수가 매우 인접, 공간과의 부조화로 설치장소 변경 필요
- 콘셉트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부족함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 형식에서, 장소/공간 예술적 의미가 부족함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정체성과의 연관성이 부족
- 건물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예산 대비 작품의 크기나 단조 공법으로 제작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산과다 책정됨
- 중요 작가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작가의 이전 작업의 개연성이나 작품 방향과는 조금 멀어 보임

<기타 의견>

- 심의도서상 작품제작 과정이 없음. 좌대에 대한 설명도 없음

2. 시간여행

<긍정적 의견>

- 광장 외곽에서 중앙으로의 위치변경은 가시성 확보면에서 적합해 보임
- 변경된 위치 유효함
- 적합
- 무난해 보임
- 작품의 뒷공간이 열려 작품의 시각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짐
- 위치변경에 대한 이견 없음
- 작품의 변경된 예정 위치는 상상의 시간여행이라는 작품의 의도를 보다 확장적으로 드러내는 열린 장소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설치 위치변경 이상 없음
- 작품이 단순미를 갖추면서도 섬세한 차이를 리듬감 있게 구현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장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루고 있음
- 재료성과 공간성 등이 주변과 조화로우며 잔디 마감 등의 시공계획이 적절함
- 변경 동의
- 공공미술품 설치에 따른 장소의 환기를 제공하고, 조형물과 시민이 관계를 만들어 갈 특색있는 공간 조성이 됨
- 수평적 배치와 랜드마크적 디자인
- 위치변경 이상적임
- 이견없음
- 장소와 공간에 따른 위치변화에 문제없음
- 기본 설치부분 보다 좀 더 친 대중적인 공간으로 위치변경
- 사전 위치가 가진 고립감은 줄어들고 광장과의 경계가 약화되고, 공중과 가까워지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임

<부정적 의견>

- 변경된 위치가 사람들에게 작품이 잘 노출될 수 있는 장소인지 검토가 필요함
- 작품 이동 시 후면에 위치한 펜스가 큰 방해가 됨
- 이전 문제 외에 작품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가진 청량리 일대의 장소가 지니게 될 시대적 감각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이용객 취향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3. 아기공 산호

<긍정적 의견>

-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공감감이 가며, 작품의 규모, 형태, 구성 등 설치 공간에 잘 어울림
- 흥미롭고 유쾌하며 색채감과 수직적 구조 연출이 활력을 돋구어 주는 작품임
- 장소와의 연결성이 긍정적임
- 산호와 공과의 연계성은 부족하나 대체로 무난한 형태의 작품
- 산호의 조형적 활력이 좋음
- 작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변 경관과도 조화가 탁월한 작품임
- 현실과 다른 몽환적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 친근한 이미지의 형태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주변 공간을 활기차게 만들어줌
- 누구에게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유기적이고 단순한 조형성을 갖고 있음
- 선형적 구조-색채의 활용이 환경과 조화로움
- 소재와 기법이 대중들에게 재미있게 비추어질 수 있고 공간에 유희성을 더할 수 있음
- 환경 이슈를 공동체의 생활 속에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건설적임
- 흥미로운 형태
- 작가의 작품과 연계성 보임
- 흥미로운 디자인 및 요소
- 단순하지만 개념이 강한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조형물이 설치될 장소는 많은 유동인구와 각종 행사를 고려해야함
- 관객의 가시 범위와 감상 각도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설치하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

<부정적 의견>

- 안정성을 고려하여 좌대 설치 필요해 보임
- 아기공과 산호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려움. 주변의 나무, 잔디 등의 자연이 없는 회색 공간에 더 어울릴 듯함
- 설치공간과의 연계성 미흡하고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작품 규모에 비해 작품가 과다
- 바다 속 생태계의 보고인 산호와 아기공을 부각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주요 요소의 개연성이 다소 부족하며 산호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표현됨
- 자연대상을 활용하는 주제 선택이 환경의 이슈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없음
- 산호 군락과 상동동 아파트단지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타당성이 부족함. 작가에게 산호는 중요한 소재이지만 산호로 보여지기도 어렵고 장소의 이용자는 느닷없는 산호와 아기공의 존재가 예술적 의도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강압이 발생함
- 색채가 주변 공간과 충돌하고 작품의 개성이 단지 내 다른 조형물들과 너무 동떨어질 수 있음이 우려됨
- 공간에 비해 작품의 배치계획이 소극적임. 작품의 경쾌한 성격에 걸맞게 주어진 바닥면을 적극 활용하여 경직되지 않게 배치하며 자연스러움과 유희적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겠음
- 주변 경관과 동떨어지는 색채
- 빈약한 구성
- 주변 경관에 대해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산만하게 비춰질 수 있음
- 전반적인 조화와 결집성이 부족함
- 작품 가액 과다책정
- 단조로운 형태와 색상
- 아이들이 놀이 기구로서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형물과 조형물 사이의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할 것
- 구조검토 필요
- 야간조명(전기) 설치, 표현 가능 확인 필요
- 제목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런 감흥은 전달되나 매달리거나 하는 접근성을 의도한 것인지 의문이 듦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작업의 구상이 모호하고 작품과 설명, 산호와 아기공의 연계성 부족
- 공간과의 조화성, 안전성 등이 부족함(아이들의 안전고려 필요)

4-1. 몽돌과 바다

<긍정적 의견>

- 돌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은 수변으로 이루어진 설치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듯 보임
- 아파트 공간에 잘 어울리는 작품
- 단순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작품 구성으로 입주민들에게 정서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공간과의 상호 관계가 용이해 보임
- 보다 윤택한 조형미 및 활용성이 돋보임
- 이전 작품보다 개선되어짐
- 설치공간의 장소에 작품이 잘 어울리는 작품
- 작가의 작품에 사용하는 시그니처 색상을 넣어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인상적인 색상과 형태가 인상적인 공공미술로서 가치가 있음
- 위치의 적정성, 주변 공간과 조화로운 작품
- 변경 전의 작품에 비해 변경 후의 작품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조형성 면에서 우수함
- 몽돌의 일부 단면을 절개하여 스트라이프로 바다의 흔적을 표현한 것이 독창적임
- 간결한 구조-푸른 색채의 조화가 조경공간과 조화로운
- 주변의 돌들과 관계시킴이 작품을 확장하고 장소에 안착시킴
- 사용하는 조각을 설치하는 것은 장소 이용 상황에 유효하고 소통적임
- 보편적인 소재에서 오는 미니멀한 감각이 현대 조각에 부합함
- 호불호없는 디자인과 재료
- 심의의견을 반영한 작품으로 개선됨
- 자연석 형태를 금속 재료로 재해석

<부정적 의견>

- 부자연스러운 어울리지 않은 형태의 싸임이 중심이 흐트러져 보여 불편한 느낌을 줌
- 중력의 배분으로 쌓이는 돌탑의 의미는 외형만 재현한 한 덩어리의 스틸 구조에서는 느껴지기 어려움
- 침식에 의해 몽푹해진 돌의 감성이 스테인리스의 마감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움
- 과도한 작품 제작 비용
- 작품의 내용과 결과물의 개연성이 부족함
- 절단된 형태와 내부 패턴의 개연성 부족함
- 주변과의 연결성 부족함
-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의 연계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작품의 주제와 표현 형태도 공강하기 어려움
- 인건비, 심의도서 제작, 그래픽비, 기타경비 등 전체적으로 작품가액 높게 책정됨
- 작가의 작품경력(고유성)이 개입하지 못한 건축물 미술작품
- 몽글해진 몽돌에 굳이 단면을 낼 이유가 보이지 않고, 계획안 상에서 보이는 단면과 벤치 전면의 표현이 매우 서투름

- 바다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파도로서의 벤치 표현이 부족한 창의력을 드러내고, 이것이 추가됨으로써 몽돌 조각의 단순미와 자연미를 저해함
- 주민들이 앉아도 되는 낮은 몽돌들을 배치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겠음
- 작품가액 대비 작품규모가 작음
- 작품 단면에 들어간 바다의 이미지 해석이 일률적이어서 조형적 흥미로움이 떨어짐
- 작품 가액 과다 책정
- 몽돌의 수직과 수평의 어울림을 고려한 조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바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벤치, 돌이 깎여진 형상의 패턴적이고 일률적인 면에서 조형미, 독창성이 부족함
- 야간조명(전기) 설치, 표현 가능 확인 필요
- 스트리트 퍼니처 역할을 겸한 작품 (약300~400mm)부분은 파도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나 형태가 너무 설명적이며 세로줄의 색상이 파도 이미지와 억지스러워 생략되어야 함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진부한 형태, 예술성, 조형성 부족
- 개념구현의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부족함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부족함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차가운 인상, 공동주택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디자인 조정과 컬러 부분 재고 필요해 보임

<기타 의견>

앉을 거리를 제공할 경우 명판 내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기

4-2. Time of Skin

<긍정적 의견>

- 조경계획을 변경하여 기반부를 올려 가시성을 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전면용 플라즈마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야경의 조명 효과로 작품이 더 돋보일 것으로 생각됨
- 작가의 주제 의식이 직관적으로 표현됨
-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형태가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짐
- 정면보다도 측면의 볼륨이 인상적임
- 작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조형물로서 주경 및 야경에도 돋보이는 조형성과 주목성이 탁월함
-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잘 반영한 작품

- 작가 기존 작품들과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
-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
- 적당한 제작 단가
- 작품의 위치, 주변과의 조화성 등이 모두 적절함
- 작가의 독창적 표현기법을 강조한 작품 보완이 긍정적임
- 어느 위치에서 보아도 직관적으로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룸
- 재료 가공이 성공적일 경우 공간의 품격을 높일 수 있겠음
- 바닥면의 단차가 흥미로움을 제공함
- 작품의 주제에 맞는 적절한 표현
- 기존의 단점을 잘 보완하여 조각의 완성도가 올라감
- 플라즈마 기법처리로 변경함으로써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의 특성을 살린 텍스처적인 장점이 있음
- 무난한 재료 및 디자인, 유지보수 유리
- 심의의견을 반영한 작품으로 개선됨
- 기념비적 형태
- 플라즈마 기법의 표면 처리로 작품 재질감 우수, 작가가 가진 기법을 잘 이용

<부정적 의견>

- 조형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조형물이 많음
- 심의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
- 비대칭적이고 복잡한 면의 흐름이 있으나 전체적인 대칭 형태에 묻혀버림
- 자연과 우주를 드러내는 원형적 이미지는 다양한 재질로 이미 시도된 형식으로 해당 작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플라즈마 기법의 장점이 부각 되기에는 다소 독창성이 부족한 조형미를 가짐
- 시공 방법에 따른, 강한 바람에 의한 흔들림 우려
- 원형 속 원형이 반복 결합하는 어색한 조형 구조
- 재료의 물성과 재질감의 구현을 감상하는 작품으로 물리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흔적을 통해 시간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드러낸다는 작가의 주장은 우리가 있음
- 사각의 잔디 단상 위에 또 둥근 좌대가 있는 것은 마이너스임
- 조각으로서 작품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작가 자신의 작품 세계의 연장으로서의 야외 영구전시일 뿐 작가가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고려 속에서 변화 발전시킨 작품은 아님

- 다소 특별성이 없어 보이는 조형으로 보임
- 구조검토 필요
- 작품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재질감, 제작기법 부각 필요
- 콘셉트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부족함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공간 예술적 의미가 부족함
- 건물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작품가격과 관련 과다책정으로 보임 디자인 조정이 필요해 보임

4-3. Connected

<긍정적 의견>

- 수직적이고 경직되었던 이전의 형태와는 다르게 리듬감있게 구성된 작품은 공간과 잘 어울리며, 작품 부분에 설치된 LED조명으로 야경에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여 긍정적으로 보임
- 이전의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으로 보완됨
- 요소들의 조합이 심미적으로 보임
- 정교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상이 주변 자연과 어우러짐
- 신선하면서도 섬세한 형상이 인상적이며 색상과 마감, 조명 효과도 잘 어울림
- 수직적인 건축물들 사이에 다채로운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의 설치가 공간을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해줌
- 공간과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연출된 작품
- 작품과 설치공간의 조화가 무난해 보임
- 재심 부결사항 충실히 이행
- 세부적인 작품 제작 계획
- 적절한 제작 단가
- 부결된 전작에 비하여 독창적이며 조형미가 뛰어나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재미를 줄 수 있음
- 원형-도형의 결합이 공간에 특이성을 부여함
- 디자인 변경을 적극 시도함
- 작가의 의도와 같이 이용객에게 조형성의 경험과 공간에 대한 환기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 부결된 전작에 비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지닌 작품
- 작품 조형으로부터 오는 리듬감이 주변경관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동시에 조화를 이룸
- 형태의 균형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함

- 폴리카보네이트 재료의 장점-내구성 강함, 친환경소재, 유해성분 없음
- 재료선정에 따른 다양한 연출 가능
- 심의의견을 반영한 작품으로 개선됨
- 지난 심의 지적사항인 경직된 형태를 보완하여 결점이 쌓여 있는 형태를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형태로 표현한 풍성한 공간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임
- 기존 작품에서 벗어난 다채롭고 조화로운 조형미로 새로운 공간 연출
- 콘셉트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은 흥미로움. 설치 및 외부 충격에 대한 설치 형식 고려됨(기단부분 접근성에 대한 유의)

<부정적 의견>

- 조화롭지 못한 구성으로 불안한 형태의 반복되는 지루한 감이 있음
- 기하학적 형태들의 표현과 구성이 다소 복잡하게 보여 시각적 피로감이 느껴짐
- 작품 설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설치방법에 따른 스테인리스 환봉구조의 결합이 어색해 보임
- 창의성, 예술성이 부족하고 장식적으로 보임
- 사람의 손길, 눈, 황사 등의 기상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전체 구성이 조금 더 간결했으면
- 애매모호한 연출
- 구조검토 필요
- 폴리카보네이트 특성상 기온에 의한 수축 팽창률이 높은 소재로 계절변화에 따라 미세한 틈이 발생, 유지보존 계획 재수립 필요

5-1. 별 하나에 추억과

<긍정적 의견>

- 이전의 작품에서 두드러졌던 민화, 일러스트 요소에서 벗어나 보이며, 공간에 어울리는 색감, 재료를 변경하여 무난하게 보임
- 작품의 주제 의식이 명확함
- 업무공간에 맞는 색감으로 공간에 적합해 보임
-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상적인 작품
- 과감한 컬러

<부정적 의견>

- 작품 가액 과다

- 재료, 내용, 구도, 형식이 부조화
- 작품 설명에서 설파한 동양 사상의 맥락이 그림에서는 느껴지지 않음
-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와 작품과의 부조화
- 높은 제작 단가
- 작품과 주변 공간이 어울리지 않고 작품비가 과다함
-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요소들의 배치가 다소 산만하며, 이미지들의 관계적 개연성이 다소 부족함
- 설치 공간과의 조화가 적합하지 않음
- 검은색의 배경-푸른색의 조화가 공간과의 대비, 탁도가 생겨 영구적 설치작품으로 적합하지 않음
- 소나무, 물, 오로라의 구조에 의한 초현실적 화면의 회화적 특이성을 성립시키지 못함
- 작가의 작품경력, 평면 회화의 작품규격에 따른 작품가액이 높게 형성됨
- 현재의 서울과 괴리가 큰 모티브들로 구성
- 강렬한 색채와 선 등이 주위 공간을 장악하며 공간의 잠재성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큼
- 작가의 개인작품의 발전보다는 함께 바라보고 소통하는 효과에 대한 방향을 지향해야겠음
- 대부분의 항목의 예산이 과다책정됨
- 가격에 비해 적은 규모의 작품
- 작가의 작품과의 연계성은 이해되나 다소 정제되지 않은 형상의 표현
- 작품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심상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약함
- 설명적이고 평이한 세부적 형태들을 개선할 것
- 유화 작품 바니시 처리 유무 제시할 것
- 설치 건축물(위치)과의 조화 의문
- 현대건축물과 전혀 조화롭지 않은 작품임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주제와 기법, 색감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공간과 부조화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장소 /공간 예술적 의미가 부족함
- 업무시설의 정체성과의 개연성이 부족
- 건물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예산 대비 작품 및 재료 제작에 필요경비가 많이 부풀려지고 이해되지 않음. 또한 작가의 작품비용이나 회화의 작품 가격이 과다 책정됨

<기타 의견>

- 명패 내 제작년도 삽입 및 작품 제목과 설명 보완 필요.

5-2. 동행-집합과 합산

<긍정적 의견>

- 이전의 산만하게 배치되어있던 작품을 단순화함으로써 간결해 졌으며 공간과 무난하게 어울림
- 작가의 기존 작품과 결을 같이 하는 작품으로 설치 공간에 무난하게 어울림
- 작가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건물 인테리어와도 톤이 맞게 잘 어울림
- 이전 작품보다 개선되어짐
- 전 부결작품에 비해 간결하고 현대적인 이미지임
- 작가의 작품세계와도 연계되어 보임
- 시각적 환기를 제공하고 조형미 측면에서 긍정적임
- 입체감과 몰입감의 구도

<부정적 의견>

- 날카로운 형태로 안전해 보이지 않음
- 스테인리스 스틸의 거울 광택이 다소 진부하며 형태와 어울리지 않음
- 인간의 형상에서는 독창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 단순한 조형미
- 기시감이 높은 상투적인 형태의 조형성
- 톱니바퀴를 연상시키는 조형적 이미지와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이 동행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다소 동떨어져 있음
- 좌대로 상정되는 검은 대리석이 전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
- 기계장치와 유사-재료적 성질에 따른 공간과의 조화가 이질적임
- 작품 내부인 질은 우수하나 진부한 내용과 형식, 공식화된 설치방식을 지닌 작품임
- 동행의 의미가 잘 소통되지 않음
- 광택감이 과다해 보임
- 좌대가 어색하고 작품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음
- 작품의 주제와 의도가 불명확해 보이며, 조형적인 면의 효과가 약해 보임
- 조형적 형식이 측면에서 받침석은 생략하는 것을 권고함
- 구조검토 필요
- 야간조명(전기) 설치, 표현 가능 확인 필요
- 5-1. 5-2 작품을 기획할 때 건축공간의 이해와 작품콘셉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 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느슨한 조형적 해석으로 모호한 구성과 형태
- 기단과 작품의 연결성 모호
- 부조 구현의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부족함- 진부해 보임_이전 작업보다는 많이 정리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장소성과는 좀 멀어 보임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부족함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차가운 인상, 공공의 장소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 디자인 조정과 컬러 부분 재고 필요해 보임

6. 9개 정원의 단면

<긍정적 의견>

- 모던한 형태 감각에서 현대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음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결성이 있는 작품임
- 신선하며 역동적임
- 무겁지 않고 경쾌함
- 작가 고유의 기존 작품들과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
- 현대적이면서도 작가의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
- 공간의 인지성, 주변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됨
- 보완 작품의 이미지가 좀 더 현대적이고 작가의 독창성을 잘 드러냄
- 간결한 원형적 구조의 결합에 따른 변화와 통일성, 물성(청동)의 활용이 긍정적임
- 세련되고 깔끔한 구성
- 설치 공간 및 주변 경관과 대비되며 어우러지는 색채감이 보이며, 공간에 활기를 불러일으킴
- 모듈 단위의 현대적인 구성방식이 긍정적임
- 호기심 유발 및 테마가 있는 작품
- 심의의견이 작 반영된 작품으로 보완되어 공공작품으로 역동성이 느껴짐
- 현대적이면서도 작가의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으로 교체
- 단순하지만 개념이 강한 이미지로 조각과 환경에 적합해 보임
- 조형물이 설치될 장소는 많은 유동인구와 각종 행사를 고려해야함
- 관객의 가시 범위와 감상 각도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설치하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

<부정적 의견>

-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조형물은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내지만 주거공간이라는 설치장소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듯 보임

-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안정성이 우려됨
- 주경과 야경의 주목성이 부족
-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공격적인 조형성
- 작품에 내용이 어울리지 않고 형태가 너무 단순함
- 비슷한 형태들을 모듈화하여 유사한 형식의 작품으로 많이 설치되어 식상함이 느껴짐
- 아파트의 수직성을 보다 강조하는 이미지로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에는 다소 역부족임
- 주거 공간에 작품이 위치하기는 다소 조화롭지 못함
- 작가의 기존의 공공미술 작품들에 비해 예술성이 저조해 보임
- 작품의 그래픽 처리가 전달력이 떨어져 작품이 잘 파악되지 않음
- 여전히 아파트 주거단지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장소에 어울릴 듯 함
- 조명은 관객의 가시 범위와 감상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방식을 채택할 것
- 조명으로 인한 통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소지가 있음
- 구조검토 필요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작품명과의 개연성이 떨어지고 조형적 심미성이 낮아 표현의 다양성 모색 필요
- 진부한 형태, 예술성, 조형성 부족
- 개방된 공간을 살려서 보다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형태 필요

7. Rafting-흔적

<긍정적 의견>

- 협소한 외부 공간에서 내부 로비공간으로 설치위치를 변경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높은 층고를 활용한 긴 형태의 작품은 설치 공간에 잘 어울리며 예술성이 돋보임
- 회화성이 뛰어나며 공간을 돋보이는 작품
- 작가 고유의 정체성이 기존 작품에 이어 일관되게 확장됨
-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
- 제목이 인상적이며 어떤 것이 지나가고 난 듯한 물결의 파문이 역동적으로 잘 표현됨
- 작가의 정체성이 잘 표현된 내부조형적 부조 작품으로 층고가 높은 공간과의 매칭과 조화가 매우 세련되게 표현됨
-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작품
- 경쾌한 형태와 적절한 작품설명
- 작가의 개성이 잘 담겨있고 설치공간과 조화를 이룸
- 재질의 견고함과 물결무늬의 리듬감이 창의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설치 공간과도 적절히 어울리는 작품의 규모와 조형성을 갖춘

- 기존의 외부공간 활용의 애매함을 해소, 실내공간으로 유입, 부조작품 활용과 돌이라는 물성의 아름다움이 공간과의 조화를 이룸
- 로비 벽과 비울적으로 색채적으로 재질적으로 조화를 이룸
- 작가 작품과의 연계성 보임
- 석재로 표현한 에너지의 리듬이 조형적으로 흥미로움
- 변경된 설치 위치에 걸맞는 규모와 조형성을 띄는 작품
-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미, 예술성 면에서 긍정적임
- 빛(조명)의 위치 등에 따른 다양한 연출
-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내부공간으로 변경함은 긍정적으로 보임
- 작가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작가의 독창성과 작업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작품

<부정적 의견>

- 작품 가액 과다
- 판석으로 마감된 벽 위에 판석 조각이라 재질이 겹치고 위험해 보임
- 재질이 꼭 돌아야 할 필연성은 다소 약하게 느껴짐
- 너무 상투적인 이미지로 해석된 조형성이 아쉬운 작품
- 오석이라는 재료로 가액이 높아 가격의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
- 어디에나 통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지닌 작가의 기존의 작품의 시리즈가 상설 전시 형태로 설치됨
- 건물 내부 전면에 대형으로 설치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첫인상을 좌우함
- 사람들은 미미한 차이만 지닌 일련의 작품을 서로 다른 건축물에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임
- 연작은 개별 건축물과의 이용자 고려 등과 같은 내용적 관련성 및 색채 변화 등과 같은 형식적 연관성을 높여야겠음
- 로비의 인테리어 이상의 예술성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야간조명(전기) 설치, 표현 가능 확인 필요
- 작품의 재료, 크기, 제작기법에 비해 가격이 과다함
- 부조 구현의 형식적 측면에서 독창성, 예술성이 진부해 보임_여전히 공간과 장소성과는 좀 멀어 보임
- 구조물을 이루는 소재형식에서, 공간, 장소, 예술적 의미가 다소 부족함
- 색과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차갑고 무거운 인상, 새로운 건물과 미래 공공의 장소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임

<심의결과 집계 및 결과발표>

위원장 : 오늘 일반안건 10개 작품 중 2, 3, 4-1, 4-2, 4-3, 6, 7번 작품이 승인, 1, 5-1, 5-2번 작품은 부결됐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